

만남

2022년 3월
통권 20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전례의 의미-----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4
전례의 숲	-----	7
영적 상담	-----	10
보물 창고	-----	12
성경 속의 사람들	-----	15
축일 축하, 이 달의 전례	-----	17
본당 살림살이	-----	18
영혼의 샘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 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3월 기도지향》

❖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하도록 기도합시다.



✦ 전례의 의미

“신부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 다른 신부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신부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전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순서와 바른 자세에 따라서 바른 전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치와 정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전례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는 전례의 목적에 따른 감사와 찬미 그리고 청원의 표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에 대해 전례 헌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전례 헌장 10항)

여기서 우리는 전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통해 성화됩니다(전례의 하강적 측면).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전례의 상승적 측면). 모든 전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무언가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 하느님 은총으로 성화되는 순간인지, 그리고 참된 하느님 찬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먼저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례 때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기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 같을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전례 헌장 7항 참조) 이 가르침에 따르면 전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모두가 그분의 사제직을 수행하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공적 예배이기에, 단지 미사나 전례를 주례하는 사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위가 됩니다. 전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례는 과연 그러합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루카 9,28ㄴ-3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2장 “다볼 산의 예수” 1절과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주님! 저희도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 ❖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는 저희의 십자가를 곳곳이 짊어지고 가나이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9장 28 ㄴ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9 28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 29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 30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 31 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 32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 33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 9 34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35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36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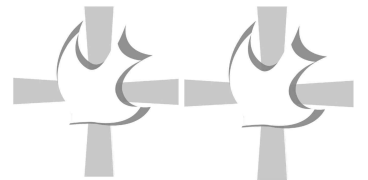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듣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 제2주일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런 변모 사건을 들려줍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예수님의 첫 수난 예고(루카 9,22)를 접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분의 말씀(9,23-26)도 들었습니다. 이런 무겁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당황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스런 변모를 통해 희망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런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로운 측면을 미리 본 것이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훈련받는 과정 중에 중요한 한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루카 복음사가는 앞서 헤로데의 입을 통해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는데(9,9) 바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단어, 또 구름과 하느님의 목소리는 하느님 백성이 탄생한 장소인 시나이 산에서의 하느님의 현현 사건을 상기시키고, 천상의 두 방문자와 예수님의 영광스런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천상의 두 남자(24,5)와 성부 옆에 앉으신 영광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전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스런 모습은 재림 때 오실 그분의 모습과 연결됩니다(21,27). 이처럼 복음은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원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과 그분의 업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청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목소리와 함께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인 동시에 수난 받으셔야 할 사람의 아들로 제자들 앞에 남아 계셨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원은 먼저 그 길을 앞장서 가셨던(19,28)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 뒤를 따를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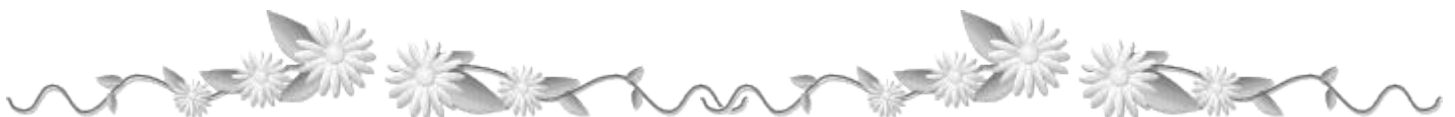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2장 “다볼 산의 예수”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미사 주례와 거행 기술(심규재 실베스텔 신부님)

어떤 젊은 신부님이 이따금 미사 시간에 늦고, 더구나 혼자서는 시간을 바꾸어 미사를 봉헌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렇게 뉘우쳤다고 합니다. “부제 때까지는 내가 미사 시간에 맞추었다. 언제나 미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셨다. 그러나 서품을 받고 나서는 주님께서 내 시간에 맞추어 오시게 되었다.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실제로 신자들이 모이고 준비가 끝나도 사제가 없으면 미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사에는 사제 외에도 많은 이들이 수고를 합니다. 시종과 독서자,



시편 담당과 성가대(지휘자, 선창, 오르간 연주자 포함), 해설자, 안내 담당, 헌금 담당, 장식 담당과 제의실 담당, 전례 담당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미사를 거행하려면 사제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단순히 빵 나눔으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지역 공동체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새롭게 하는 성사입니다. 비록 모든 신자들이

세례 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성찬의 제사를 봉헌하지만 오로지 사제만이 서품 성사의 힘으로 성찬의 성사를 이루고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제사를 바칠 수 있습니다. 서품을 받은 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제는 교회법으로 금지를 당하지 않고, 다른 법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다른 법규범, 특히 전례 규범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교회법에는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지켜야 할 규범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제는 신자들이 효과를 얻도록 합당한 방식으로 미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미사를 마친 뒤에는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나아가 신자들이 미사에 온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가 인간 삶의 중요한 문제들과 현실의 중요한 사건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해야 합니다.

사제는 원칙적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미사 거행할 수 없어

미사 거행과 관련하여 사제들에게 해당되는 다른 규정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제는 날마다 미사를 거행하라고 간곡하게 권고를 받습니다. 이 권고는 신자들과 함께 거행할 수 없는 미사에도 해당됩니다. 미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며, 단순한 영성체로는 얻을 수 없는 풍요로운 열매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권고는 신자들이 참여하는 미사가 정상이며, 신자들은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다른 원칙들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제는 신자의 지향에 따라(보통, 예물을 봉헌하지만 예물 없이도 요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미사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사는 살아 있거나 죽은 사람 모든 이를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쉬고 있거나 성사 참여에 장애가 있는 가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미사가 공적인 행사인 때에는 물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합니다. 한편, 여러 가지 기원을 위해서나 신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제는 원칙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미사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수도회 장상은 안 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교구장은 사목의 이유가 있을 때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를 세 번까지 드리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법에 따라 모든 사제는 특별한 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어느 날이나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으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지만 공동 집전이 있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같은 시간에는 할 수 없고,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와 부활 성야 미사도 따로 개인으로 봉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와 친교가 없는, 다시 말하여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나 공동체의 사제나 성직자들과 공동 집전을 할 수 없습니다.



미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회중 전체, 특히 사제는 “거행 기술”(ars celebrandi)을 익혀야 합니다. 전례에 관련된 교회 문헌에 요즈음 이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2007년에 나온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도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행 기술은 “올바른 거행 방법”이란 뜻으로, ‘기도가 담고 있는 내용과 예식이 가리키는 뜻에 경건하게 마음을 맞추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동작을 취하고 말을 발설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올바른 거행 기술은 신자들이 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며 지름길입니다. 올바른 거행 기술은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한다는 깨달음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제는 미사의 주인이 아니라 미사의 봉사자입니다. 신자들이 사제 자신이 아니라 제대를 통하여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미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극의 주인공과 미사의 주례 사이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작품의 동작, 옷, 언어, 다른 소통 수단으로 작품의 인물을 표현하면서 관중의 주의를 끕니다. 한마디로 연기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례는 나타내려는 분을 흠송하는 신앙인입니다. 그에게 최고의 연기력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중의 박수가 아니라 신자들의 구원입니다.

당연히 사제는 자신의 관심이나 성향을 드러내기 위하여 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미사는 그 본성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거행 방법의 첫걸음은 정해진 동작과 말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사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당 건축과 성화와 성상, 말과 노래와 침묵, 몸의 자세와 움직임, 전례 의복과 색깔과 비품과 같이 미사에 사용되는 여러 표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예식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찍이 성 베네딕토는 “마음을 목소리에 맞추어” 시편을 바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사이의 일치는 기도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에도 이와 똑같은 내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의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나 같아 보이지만 늘 다른

사제는 미사에서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 때문에 제의를 갖춰 입고 품위와 영예를 받습니다. 입당할 때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을 할 때에는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물을 축성하여 나눠 줄 때에는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사를 드릴 때 거의 같은 말과 동작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성의 없이 기계적으로 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확신과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흐르는 물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같아 보이지만 늘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성경도 그렇고 미사도 그렇습니다.”

질문

다른 사람들은 평평거리고 잘 사는데,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도 나보다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슨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인생에서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마치 진이 다 빠진 사람처럼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늪에 빠진 듯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

형제님의 마음이 아주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뿌리치고 다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형제님은 자기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공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각이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형제님의 경우는 좋은 면에는 눈도 주지 않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만 집착해 심리적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마치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자기 몸의 불편함에 집착하는 것과 같이 안 좋은 심리적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님은 사고가 현실성이 모자란 듯합니다. 형제님은 마치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자기보다 아주 부자인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지적당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손에 든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탄이 심한 분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결실에만 눈독을 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아를 고립 상태에 빠뜨리고 분열적 사고를 할 위험이 큼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자기 문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사명 탐구적 삶’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의 눈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나은 편이구나 하는 위로감을 가질 수가 있고 한번 다시 살아보자 하는 결연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마음을 열고 자신을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형제님이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 나를 초월한 생명력에 눈을 뜨게 되면 나의 문제는 사실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래 전 초대 교회 시절 사막에서 수도생활을 한 분들이 평생을 사막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체험을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형제님이 그런 고민 대신에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형제님을 기억해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 반성 없이 지금처럼 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로 부터 무시당하고 죽음의 길을 갈 때에도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참담한 지경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 한국 신흥종교의 이해(노길명 요한 세레자 교수님)

신흥종교들은 곧 닥칠 종말에는 인간을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신흥종교들은 단연코 자기 종단의 창시자 또는 교주가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를 제세주(濟世主), 경세주(經世主), 심판주(審判主) 또는 재림주(再臨主)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이들은 자기 종단의 창시자가 구세주인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순진리회·증산도·태극도·순천도 등 70여 개에 이르는 증산교 계열 종단들은 창교자 강일순을 ‘구천상제(九天上帝)로 받듭니다. 이들은 강일순이 중국에 처음으로 천주교를 전한 이마두(利瑪竇) 신부(Matteo Ricci의 중국명)의 신명이 부처와 보살들과 모든 신성(神聖)들을 거느리고 구천에다 인류와 신명계(神明界)의 겁액(劫厄)을 구해달라고 하소연함으로 자신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강일순의 가르침을 근거로 그를 구천상제, 즉 하느님이라고 신앙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그리스도계 이단 종파들 또한 자기 교주를 재림주로 신앙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담이 원죄를 지은 후부터 ‘중심인물’을 세워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지만, 파견된 중심인물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함에 따라 인류구원 역사는 계속 지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통일교에서는 그 중심인물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1930년을 1기(期)로 중심인물을 파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파견될 중심인물은 1930년경에 출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류구원사에는 10년 정도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1920년생인 문선명이 바로 인류구원사업을 완성할 중심인물이라고 강조합니다.

통일교에서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인간은 영인체[영혼]와 육체로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면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함께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영적으로만 구원하였을 뿐 육적으로는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류구원에 실패한 예수님께서 1935년 문선명에게 발현하시어 인류구원 사업을 맡아주시기를 여러 차례 간청함에 따라 문선명은 어쩔 수 없이 인류구원의 대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야말로 인류구원사업의 완성자라고 신앙합니다. 통일교의 경전인 ‘원리강론’에서 문선명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였고,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며 은밀히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단 종파들은 자기 종파의 창교자를 신격화 해

이러한 주장은 신천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보호자”(요한14,16)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보호자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실상으로 밝혀진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예언한 요한 묵시록의 예언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에 의해 밝혀졌다고 강조합니다.

이만희는 예제키엘서 39장 21-29절의 내용을 들면서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다. 예수님은 자기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증거 하게 하셨으니 그가 책을 받아먹은 자요, 지팡이를 받은 자요, 천국 비밀과 지옥 비밀을 설명 받은 자요, 만민에게 증거 하라는 명령을 받은 오늘의 사도 요한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에게 오시고, 그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함께 역사를 하시니 그 옛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 함께 일하신 것과 같다. 그러면 구원이 시작되고 나타나는 장소는 배도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인 그곳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여 자신이 구원자임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신흥종교 교주들은 단순한 종교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세주나 재림주이며, 따라서 신앙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신흥종교에서 차지하는 창시자나 교주의 위치는 그에 대한 호칭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들의 호칭은 대부분 초기에는 ‘사명자’처럼 불리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높여집니다.

동학계열의 종단들은 창교자 최제우를 ‘대신사’(大神師)·‘천사’(天師)로, 증산교에서는 강일순을 ‘상제’(上帝)·‘구천상제’(九天上帝)·‘천주(天主)님’ 등으로, 대순진리회에서는 종단을 세운 조철제를 ‘옥황상제’(玉皇上帝) 라고 부릅니다.

이단 종파들 역시 자기 종파의 창교자를 신격화합니다.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 장로는 초기에 ‘동방의인’, ‘감람나무’, ‘영모님(靈母)님’, ‘이긴 자’, ‘영적 모세’, ‘영적 이스라엘’, ‘주의 종’, ‘말세의 의인’, ‘시대의 사자’ 등으로 불렸으나 후에는 ‘천부님’, ‘새 하나님’, ‘천상천하의 하나님’ 등으로 불렸고,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은 스스로를 ‘정도령’이라 호칭하면서 ‘주님’, ‘이긴 자’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자임하였습니다.

또한 신권도학연구소의 신동수는 ‘재림주’, ‘심판자’, ‘하나님의 둘째 아들’로, 팔영산기도원의 전병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방교의 노광공은 ‘이레 천부(天父)’, ‘이레신명(神明)’, ‘말세의 사명자’, ‘심판주’, ‘여호와이레’로, 대한일주평화국의 양도천은 ‘경세주’(經世主), ‘정도령’, ‘성황(聖皇)님’으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안상홍은 ‘성령 하나님’으로, 안상홍이 사망한 다음 교단을 이끌고 있는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천국 복음전도회를 세운 구인회는 ‘재림 예수’로, 그리고 이만희와 함께 ‘신천지중앙 교회’를 설립하여 함께 활동하다가 독립하여 ‘증거장막성전’을 세운 홍종효는 ‘진짜 예수’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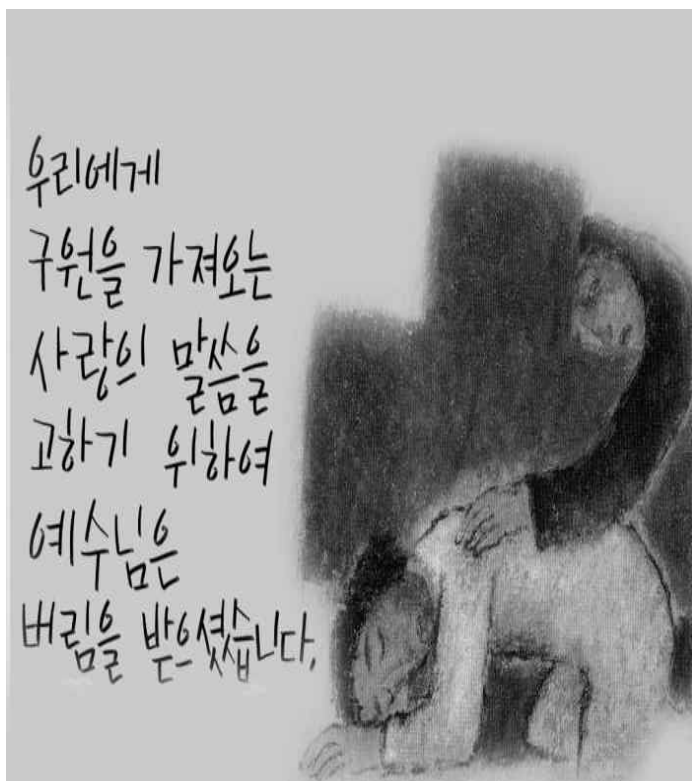
한편, 중국에서 유입되어 개신교계에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중국인 여교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느님을 자칭한 신흥종교 교주는 20여 명, ‘재림예수’를 자임한 교주는 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의 천주성을 부정

교주에 대한 이단 종파들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의 구세주 신앙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우선, 대다수 이단 종파들은 예수님의 천주성을 부정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천주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반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은 요한 세례자의 아버지인 즈카르야와 마리아가 불륜의 관계를 맺어 낳은 사생아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님은 피조물인 미카엘 대천사가 천사의 성품을 벗어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다수 이단 종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구원사업의 완전성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인류구원사업의 실패자이고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류구원사업은 자기 교주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문선명이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다 내 부하다.”라고 설교한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단 종파들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단종파들은 그리스도교와는 분별됩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루카, 21,8)



♥ 성경 속의 사람들 - 하와(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6) 창세기 2장의 최초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자의 창조’ 이야기로 곧장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여자 창조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해 말하며,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며 창조된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마음에 드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되며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코헬렛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다.”(코헬 4,9-10)

그런데 하느님은 협력자를 만드시겠다고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이는 동물들도 사람의 협력자로 사람과 도움과 유익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는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의 숨을 나눠 받고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창세 1,28)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터전을 ‘일구고 돌보는’(창세 2,15) 일을 함께 할 다른 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일종의 긴장감이 생겨납니다. 사람에게 맞는 존재는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느님은 그 협력자를 사람 안에서 찾으십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빼내셔서 여자를 지어내십니다. 여자를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말에 대해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 짓밟혀지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WBC 성경 주석 I 창세기 1-15, p.186) 사실 아담을 창조할 때 나오는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라는 말씀 중, ‘생명’(히브리말 : 하임), ‘생명체’(하야)라는 말속에 이미 여자의 이름(하와)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아담 속에 하와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에게서 나온 부르짖음입니다.

이 탄성은 뒤따르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창세 2,24)는 말씀과 연결되어 남녀의 관계 -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시집’을 왔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살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남녀가 결혼하여 새로운 살림을 내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과 다른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혼이란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 결합이나 자녀를 낳기 위한 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남자의 탄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한 ‘골육’(뼈에서 나온 뼈, 살에서 나온 살)이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마태 19,1-9; 마르 10,1-12; 루카 16,18).

여자의 창조로 사람은 비로소 남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남자(이슈)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이샤)라 불리리라.” 히브리말 발음이 비슷한 점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서두의 창조에 대한 말씀은 혼돈(카오스)에서 질서(코스모스)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산과 들, 새들과 짐승들, 물고기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얻습니다. 창조질서란 바로 모든 존재가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어야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창조는 단순히 하나의 성(性)을 지닌 사람(여성)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자 창조 이전까지 ‘사람’이라고 통칭되던 최초의 인간은 ‘여자’로 인해 ‘남자’라고 불리며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2장의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아담의 창조에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창조를 통해, 여자가 세상에 나오므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남자와 여자 모두 창조주 하느님의 질서 - 코스모스 - 조화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협력자, 곧 서로 돕고 나누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탄만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배려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신 뜻을 이루는 것임을 새겼으면 합니다.

❖ 3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요안나	김지영	19일	요셉	이현묵
3일	가밀라	허(이)명자			

❖ 3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9일	카타리나	박미량(H)	13일	살롬	현우(H)
12일	세라피나	김보경(H)	19일	요셉	문지서(H) 이재홍(O)

❖ 3월 성가번호 ❖

3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6일	115	515	183	281
13일	116	517	170	117
20일	118	210	186	280
27일	121	217	496	490

❖ 3월 전례 봉사 ❖

3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3일	최승진(바오로) 신지혜(체칠리아)	이순자(마리아) 권지연(안드레아)	주일학교	X
20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7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X



♥ 2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2월 20일 기준)

강신행, 윤석순, 권말숙 Rabe, 강신행, 최장용, 영희 Eggerstedt, 김민옥,

❁ 계좌 입금(2월 18일 기준)

허두옥, 이명원, 김치수, 현영애, 이공종, 송문규,
허길조, 최현봉, 김유석, 육종인, 허선애, 정정숙,
이영원, 김진호, 이석우, 옥수 Ranitzsch, 이경규,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월 21일 자 통장 잔액은 23.582,30 유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순시기에 단식하기를 원하시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 중에서..)

- 남을 사냥하는 말을 단식하고 상냥한 말을 사용하세요.
- 슬픔을 단식하고 감사로 채우세요.
- 화를 단식하고 인내로 채우세요.
- 비관주의를 단식하고 희망으로 채우세요.
- 걱정을 단식하고 하느님을 신뢰하세요.
- 불평을 단식하고 단순함을 묵상하세요.
- 스트레스(압박)를 단식하고 기도하세요.
- 쓰라림을 단식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세요.
- 이기심을 단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세요.
- 원한을 단식하고 화해하세요.
- 말을 단식하고 들을 수 있도록 침묵하세요.



♣ 기적과 믿음(신성남 바르나바 신부님)

기적은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광야에서 40년 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는 것, 홍해가 갈라진 것, 예리고 성이 무너진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죽은 라자로가 살아난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쓴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 점점 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자유주의 신학자가 한 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리 시간에 탈출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한 대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탈출기 14장 21-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서는 밤새도록 거센 섯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뚝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잖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홍해(red sea)라는 말은 갈대바다(reed sea)라는 뜻이거든. 갈대바다는 물 깊이가 15cm밖에 안 되는 얇은 바다야. 그런 바다는 어린아이라도 건널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유식한 척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별떡 일어서더니 “아, 하느님.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교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데 아이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리둥절해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선생님, 15cm밖에 안 되는 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던 그 많은 이집트 군사들이 다 빠져죽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라고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상식에 갇히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지만, 상식을 초월하면 믿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활용하면 상식을 초월한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3월 2일 수요일은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19시 만남성당 아래 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진행됩니다.
2. 3월 19일 토요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10시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3월 25일 금요일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10시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3월 27일 일요일부터 Sommerzeit가 시작됩니다. 아울러 3월에도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3월 지방공동체 미사는 예정대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봉헌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부회장	
				부회장	
				전례부장	
				총무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L.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자비의 도우미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t.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가나(마르가리타)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총무		
		4구역	반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신지혜(체칠리아)	
			부회장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3월(성 요셉 성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삼일절		
2	수	재의 수요일	19시 만남 성당 강당	단식과 금육
3	목			
4	금			
5	토	경칩		브레멘 공동체
6	일	사순 제1주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오스나브뤼크
13	일	사순 제2주일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만남 성당)	하노버 공동체
20	일	사순 제3주일, 춘분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10시 대축일 미사(만남 성당)	
26	토			
27	일	사순 제4주일		Sommerzeit
28	월			
29	화			
30	수			
31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